

이강무 송파구의원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 점검

잠실대교 남단 상습 정체 해소, 안전하고 신속한 마무리 당부

송파구의회 이강무 의원(국민의힘, 풍납1·2동·잠실4·6동)은 지난 10월 16일 금요일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강무 의원을 비롯해 윤유진 서울특별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잠실대교 남단IC는 잠실대교와 올림픽대로, 한가람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차량이 기존 진출입로와 한가람로에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마다 상습 정체가 빚어져 왔다. 이번 공사는 올림픽대로 하남·김포 양방향으로 곧바로 드나들 수 있는 진출

입로와 지하차도를 새로 만들어 차량 흐름을 분산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일대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하천점용허가와 가로수 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다른 자반 여건이 확인되고, 곡선 형태의 지하 굴착 등 시공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 있어 일정이 늦어졌다. 현재는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강무 의원은 주요 시공 구간을 둘러본 뒤 “잠실대교 남단은 매일 많은 주민이 오가는 길목인 만큼 오랜 공사로 불편도 컸

을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사 기간 교통 안내와 현장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새 지하차도가 한강과 맞닿아 있는 만큼 배수시설과 진입 차단설비, 신속한 통제 체계까지 빈틈없이 갖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